

2. 大坂・오사카



1. 地域概観・지역개관

朝鮮通信使一行は、6隻の外洋船で釜山より対馬・北九州を経て瀬戸内海を通過して大阪湾に到着。外洋船では淀川を航行できないため、そこから川御座船に乗り換えて大坂の中心部に到達。大坂からは淀川を京都・淀まで船でさかのぼります。

大坂には朝鮮人街道と同様、幕府の船と朝鮮通信使のみが通行できる「唐人漕(とうじんみお)」と呼ばれる川がありました。それは現在一部が埋め立てられた尻無川です。異国情緒溢れる通信使が来訪すると、大坂三郷はおろか近隣からも見物者が訪れ、大坂中がお祭騒ぎになったといえます。

申維翰の『海游録』に「河口で昼食をとっ

朝鮮通信사 일행은 6척의 외양선으로 부산에서 쓰시마·키타큐슈를 거쳐서 세토나िका이를 지나 오사카에 도착, 외양선으로 요도강을 항행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카와고자부네(川御座船)로 갈아 타고 오사카 중심에 도달했다. 오사카부터는 요도강을 따라 교토·요도까지 배로 거슬러 올라갔다.

오사카에는 조선인가도와 마찬가지로 막부의 배와 조선통신사만이 통행할 수 있는 “토우진미오(唐人漕)”라고 불리는 강이 있었다. 그것은 현재 일부가 매립된 시리나시카와를 말한다. 이국 정서가 넘치는 통신사가 내방하자 오사카 3개 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구경꾼이 찾아와 오사카 시내는 축제같은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た。ここはみな摂津州の地である。(中略)鐘屋といひ、店浦(伝法)という」という記述があります。金仁謙『日東壯遊歌』に「大坂城へ入る摂津州に属し河の名は浪華という」とあり、注記に淀川河口を一名浪華江という、と記述されています。

大阪市歴史博物館には「馬上揮毫図(英一蝶筆)」や1711年来日の「通信使行列図」、そして1682年来日の通信使と日本人との漢詩交流をまとめた書の3件があります。「朝鮮通信使御楼船図屏風」は朝鮮通信使を乗せ淀川を行く川御座船のすがたです。その船の豪華さには通信使も驚嘆しました。この屏風の船は高殿付きの御楼船で、楽人を乗せた船や供船と一緒に描いています。御楼船の幕に葵紋がみえ、紀州徳川家伝来と伝えられることから、紀州徳川家が提供した紀伊国丸のことでしょう。

大阪市歴史博物館蔵「朝鮮人来朝図」は1764(宝暦14)年来日した第11回の朝鮮通信使の一行が、御座船で淀川を大坂から淀へ向かった際、淀川左岸の野田村(現都島区)の人々が船の綱引き人夫として動員された内容が記されています。この資料は野田村の庄屋に伝来したもので、通信使を迎えるにあたり役人が下見に来たり、人々が綱引き人足として携わった様子を具体的に記録しています。また御座船の絵も描かれているなど、動員された側からみた通信使資料として大変貴重です。

※ 現在の大阪は江戸時代末期までの史料では「大坂」と記されていました。

1619년 일본을 방문한 신유한의 ‘해유록’에는 “하구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곳은 모두 셋쓰주의 땅이다.(중략) 카네야라고 하며, 점포(덴포)라고 한다”는 기술이 있다. 김인겸의 『일동장유가』에 “오사카성에 들어간다. 셋쓰주에 속하는 강의 이름은 나니와라고 한다.”고 하고, 주석에 “요도가와 하구를 일명 나니와강이라고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오사카역사박물관에는 “마상 휘호도”나 1711년 일본의 “통신사행렬도” 그리고 1682년 일본의 통신사와 일본인과 한시 교류를 펴낸 책 3건이 있다. 조선통신사어루선도병풍은 조선통신사를 태우고 요도가와로 가는 배의 모습으로 그 배의 호화스러움에 통신사도 경탄했다. 병풍선은 높은 누각(高樓)이 있는 고로우센(御楼船)으로 악사를 태운 배와 공선을 함께 그렸다. 고로우센을 덮은 막에는 아오이문(도쿠가와 가문의 문양)이 있고, 이 작품이 키슈 도쿠가와 가문에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키슈 도쿠가와 가문이 제공한 기이구니마루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사카시박물관소장 ‘조선인내조도’는 1764년 일본에 온 제11회 조선통신사 일행이 고자부네로 요도가와를 통해 오사카에서 요도로 갈 때 요도가와 좌측 언덕의 노다마을(현 도지마구)의 사람들이 배를 줄로 당기는 인부로 동원된 기록이 있다. 이 자료는 노다무라의 촌장에게 전래된 것으로 통신사를 맞이할 때 관리들이 사전 답사하러 오거나 사람들이 줄을 당기는 인력으로 종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어좌선(고자부네)의 그림도 그려져 있는 등 동원된 쪽에서 본 통신사 자료로서 매우 귀중하다. 이 자료들은 모두 201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현재의 오사카(大阪)는 에도시대 말기까지의 사료에서는 오사카「大坂」로 기록되어 있었다.

2. 関連人物・관련인물

岡部長泰・오카베 나가야스

岡部長泰は、岸和田の岡部家第3代藩主で、貞享3(1686)年～享保6(1721)年の間勤めました。藩主就任直後には家中に「条々」を触れて儉約を奨励し、自らその模範を示し、また、藩士に論語を講義するなど学問を好みました。在任中、宝永元(1704)年には、大和川つげかえ工事手伝い役を勤め、正徳元(1711)年と享保4(1719)年には、来日した朝鮮通信使の大坂での接待役などを勤めました。また、元禄16(1703)年に長泰は、京都の伏見稻荷社より岸和田城内の三の丸に稻荷神を勧請しましたが、これを契機に岸和田祭りが始ま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岸和田市公式HP)

오카베 나가야스는 1686년(조교 3년)부터 1721년(교호 6년)까지 키시와다성 제3대 영주였다. 영주 취임 직후 가신들에게 검약을 장려하고 스스로 그 모범을 보여 주며, 또한 번사에게 논어를 강의하는 등 학문을 좋아했다. 재임 중인 1704년(오우에이 원년)에는 야마토강 수리공사를 맡았고, 1711년(세이토쿠 원년)과 1719년(교호 4년)에는 일본을 방문한 조선통신사의 오사카 접대 등을 담당했다.

또한 1703년(젠로쿠 16년)에는 교토 후시미이 나리신사로부터 키시와다성내 산노마루에 이나리 노카미(稻荷神)신을 분령(分靈)받았다. 이를 계기로 키시와다 축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시와다시 공식 홈페이지)



岡部長泰 肖像(泉光寺蔵)・오카베 나가야스 초상(센코지소장)

コラム・칼럼



だんじりに残る「朝鮮通信使」本町の纏い
단지리에 남겨진「조선통신사」혼마치의 마토이(纏·표식)



岸和田だんじり・기시와다 단지리 축제

3. 疲れ取りの宿・ 숙소

1. 西本願寺津村別院(北御堂)・니시혼간지 츠무라별원(기타미도우)



西本願寺津村別院は大阪市中央区本町4丁目にある浄土真宗本願寺派の寺院。通称は北御堂(きたみどう)。江戸時代を通じて行われた朝鮮通信使の一行の宿舎としても使用されてきました。

朝鮮通信使は西本願寺津村別院(北御堂)を計9回にわたって使用しました。1655(明暦元)年にも、朝鮮使節の宿舎として約800人が宿泊し、日朝外交の一役を担っていました。真宗大谷派難波別院(南御堂)も一度使われました。

本願寺が京都に移転後、大坂の門徒たちは、1592(天正20)年に「楼(ろう)の岸(きし)」(現在の天満辺り八軒屋付近、天満橋南詰以東)に集会所を設けます。これが、本願寺津村別院の始まりとなります。そして、この寺院は、1597(慶

니시혼간지 츠무라 별원은 오사카시 주오쿠 혼마치 4초메에 있는 정토진종 혼간지파의 사원으로 통칭은 기타미도우(북어당)이라고 부른다. 에도시대 이루어진 조선통신사 일행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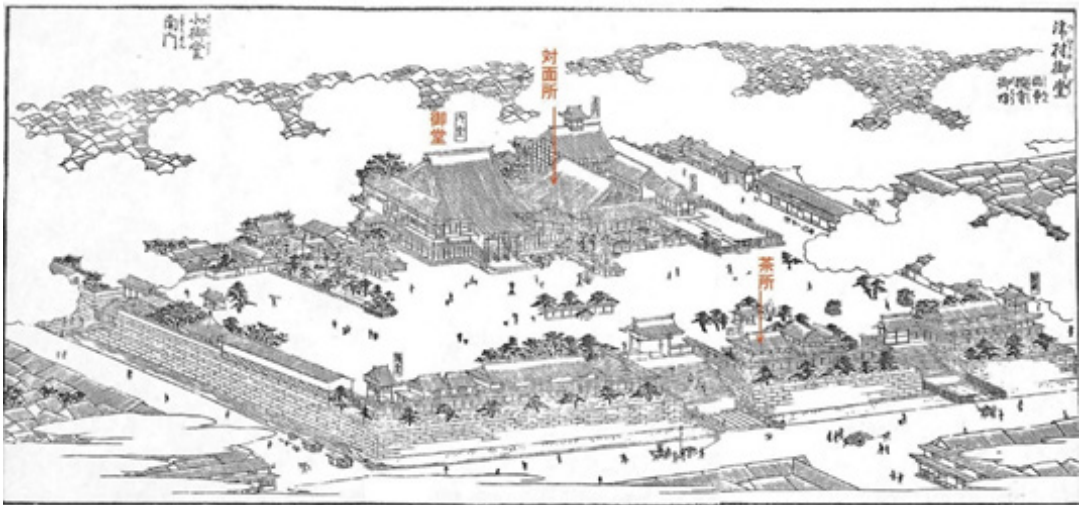
조선통신사는 니시혼간지 츠무라별원(기타미도우)을 총 9번 영빈관으로 사용했다. 1655년에도 약 800명의 사절단이 숙박하여, 조선과 일본 외교의 한축을 담당했다. 진중오오타니파 난바별원(미나미도우)도 한 번 사용된 적이 있다. 본원사(혼간지)가 교토로 이전한 후, 오사카의 신도들은 1592년에 현 텐마바시 미나미즈메 동쪽 언덕 기슭에 집회소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 절은 1597년에 마을정리계획에 의해 당시 '츠무라에(円江)' '쓰무라고호'로 불리던 현재의 땅으로 이전하여 '쓰무라고보'라고 불

長2)年に町割改革により、当時「円江(つづらえ)」「津村郷(つむらごう)」と呼ばれていた現在の地に移転し、「津村御坊(つむらごぼう)」と称しました。

当時の津村御坊は、境内面積が約2,000坪で本堂(17間の×19間)、書院、対面の間(13間)、台所(9間×11間の)などで、当時の大坂において威厳をもった荘厳な建物で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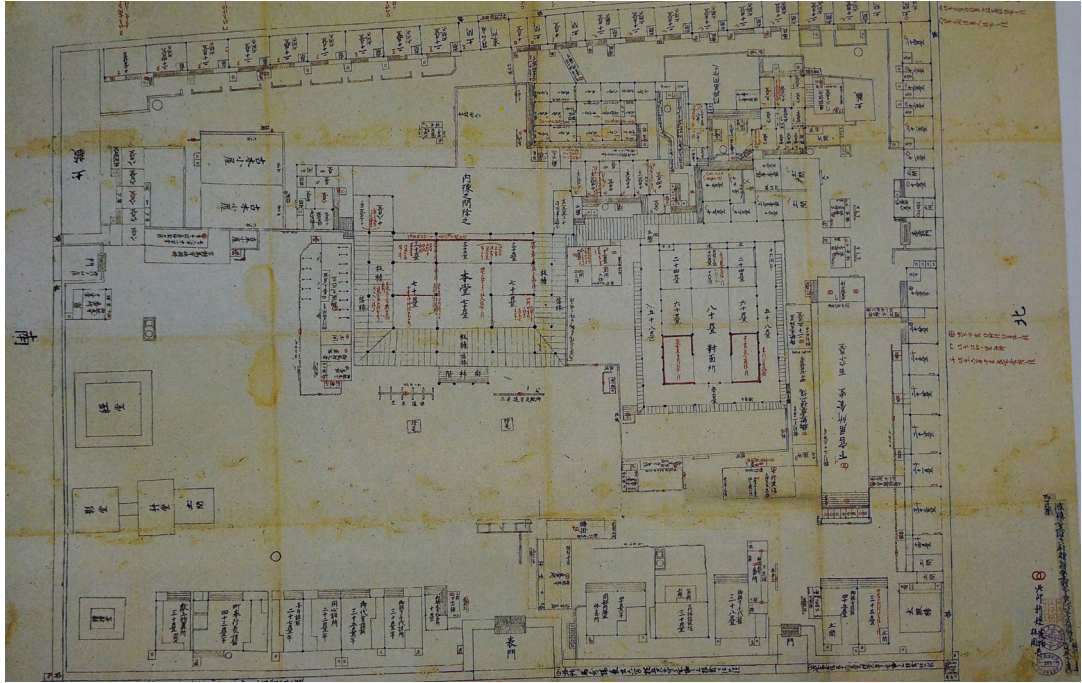
렸다.

당시의 츠무라고보우는 경내 면적이 약 2,000평으로 본당(17칸×19칸), 서원, 대면소(13칸), 부엌(9칸×11칸)등으로 당시의 오사카에서 위엄을 떨치는 장엄한 건물이었다.



元和3年一回目宿泊(日本統一の祝賀/将軍: 徳川秀忠)
 寛永元年二回目宿泊(家光襲職の賀/将軍: 徳川家光)
 寛永13年三回目宿泊(泰平の賀/将軍: 徳川家光)
 寛永20年四回目宿泊(家綱誕生の賀/将軍: 徳川家光)
 明暦元年五回目宿泊(家綱襲職の賀/将軍: 徳川家綱)
 正徳元年六回目宿泊(家宣襲職の賀/将軍: 徳川家宣)
 享保4年七回目宿泊(吉宗襲職の賀/将軍: 徳川吉宗)
 延享5年八回目宿泊(家重襲職の賀/将軍: 徳川家重)
 宝暦14年九回目宿泊(家治襲職の賀/将軍: 徳川家治)

1617년 첫 숙박(일본통일 축하/장군: 도쿠가와히데타다)
 1624년 2회째 숙박(이에미즈 습직 축하/장군: 도쿠가와이에미즈)
 1636년 3회째 숙박(태평 축하/장군: 도쿠가와이에미즈)
 1643년 4회째 숙박(이에쓰나 탄생 축하/장군: 도쿠가와이에미즈)
 1655년 5회째 숙박(이에쓰나 습직 축하/장군: 도쿠가와이에쓰나)
 1711년 6회째 숙박(이에노부 습직 축하/장군: 도쿠가와이에노부)
 1719년 7회째 숙박(요시무네 습직 축하/장군: 도쿠가와요시무네)
 1748년 8회째 숙박(이에시게 습직 축하/장군: 도쿠가와이에시게)
 1764년 9회째 숙박(이에하루 습직 축하/장군: 도쿠가와이에하루)



朝鮮人來朝大坂旅館西本願寺座割兼小屋掛絵図
조선인래조대판려관서본원사좌할겸소옥괘회도





現在、西本願寺津村別院(北御堂)・현재, 니시혼간지츠무라별원(기타미도)

2. 接待·접대—食文化について·식문화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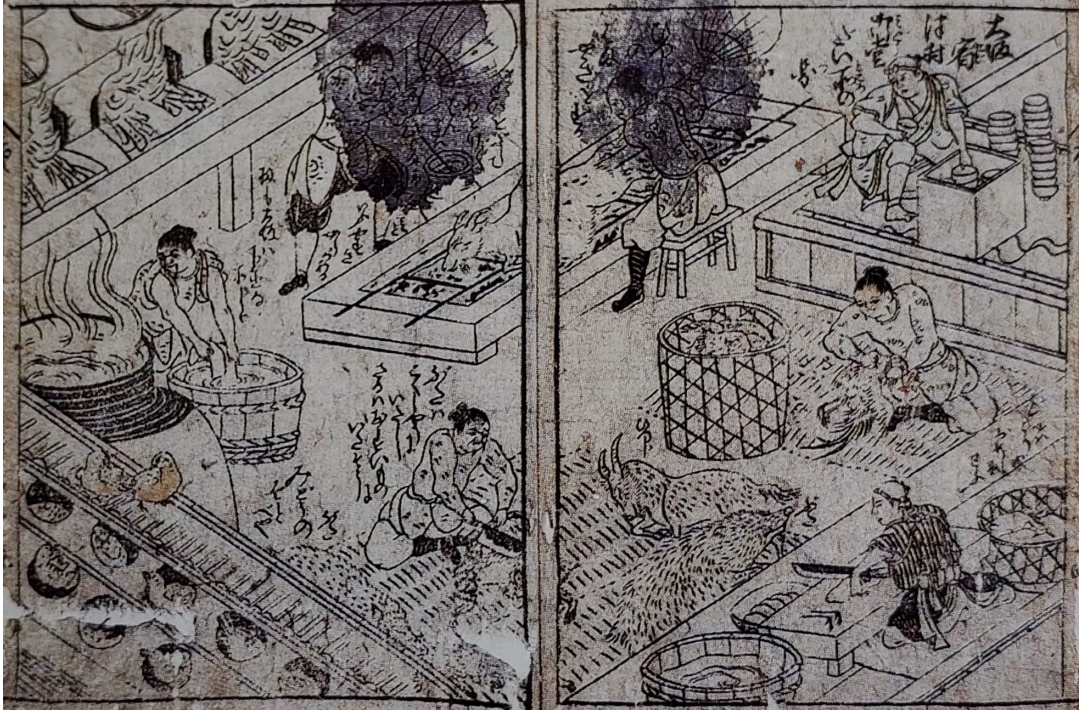
朝鮮の肉食の習慣は通信使の来日前から知られていましたが、当時の日本では肉食の習慣が一般的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こで日本側で猪や豚を提供して、通信使一行の料理人である刀尺が解体と調理をおこないました。通信使の宿所が寺である場合は、殺生のための生き物を正門からは入れられないため、獣肉搬入用の門を用意する場合もありました。やがて日本でも接待役が朝鮮料理を作れるように、料理本として『信使通筋覚書、朝鮮人好物附之写』が刊行されました。この書では通信使の好物のほかに焼肉、モツ料理、きみすい(キムチ)の作り方などが解説されており、また瑞鳥とされている鶴などを料理に出さないといった注意点も書かれています。獣肉は牛、鹿、猪、鳥肉では雉などが出されており、魚介類では粕漬、鯉節に興味を示しました。和菓子は好評であり、精進物ではセリ、にぶか(ニラ)、ニンニク、小豆飯などが好まれました。トウガラシなどの作物は17世紀以降に朝鮮へ持ち込まれており、サツマイモは1764年に正使の趙暉が対馬で栽培を学び、凶作にも役立つ作物であると『海槎日記』に記しています。

조선의 육식 습관은 통신사의 일본 방문 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당시의 일본에서는 육식 습관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측에서 소나 돼지를 제공하면, 통신사 일행의 요리사인 도척이 해체와 요리를 했다. 통신사의 숙소가 절인 경우는 살생을 위한 가축을 정문으로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가축 반입용 문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점차 일본에서도 접대 담당이 조선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요리책 '신사통근각서(信使通筋覚書), 조선인기호부지사(朝鮮人好物附之写)'가 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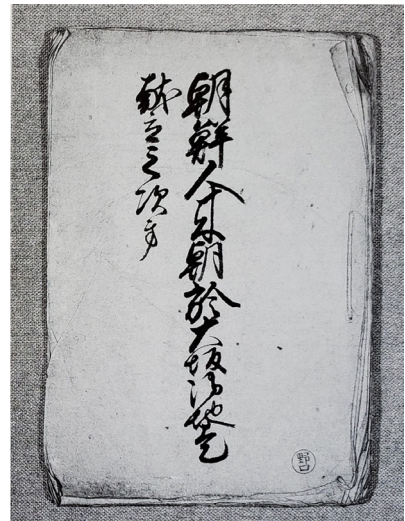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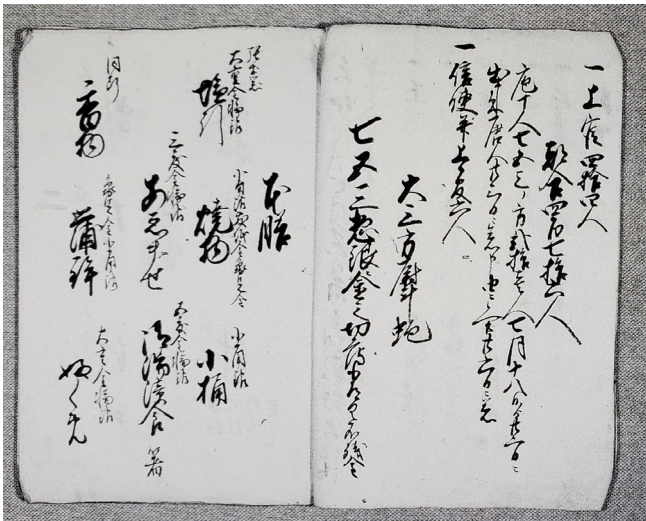
이 책에서는 통신사의 좋아하는 음식 외에 불고기, 곱창 요리, 김치 만드는 법 등이 해설되어 있으며, 또한 상서스러운 새로 알려진 학 등을 요리로 내지 않도록 하는 주의점도 적혀 있다. 가축은 소, 사슴, 멧돼지, 조류로는 꿩 등이 나왔으며, 어패류 중 카스츠키, 가쓰오부시에 흥미를 나타냈다. 일본 전통 과자는 호평이었으며, 정진물로는 미나리, 부추, 마늘, 팥밥 등을 선호했다. 고추 등의 작물은 17세기 이후 조선에 들어왔으며, 고구마는 1764년에 정사 조엄이 쓰시마에서 재배법을 배웠고, 흉작시에도 도움이 되는 작물이라고 『해차일기』에 적고 있다.



朝鮮人御饗応繪卷(一部)1810年(文化7)・조선인어향응회권(일부)1810년(문화7)



朝鮮來朝物語 大坂の宿津村御堂だい所の図(京都大学図書館所蔵)
 조선래조이야기 오사카숙소 츠무라미도 부엌 그림(교토대학도서관 소장)



朝鮮人來朝造於大坂御馳走獻立之次第、天和2年(1682)大坂東本願寺難波別院に宿泊した際の献立を書き上げたもの(辛基秀コレクションの世界)・조선인 내조 조어 오사카 대접 식단 차례, 덴와 2년(1682)오사카 히가시 혼간지 난바 별원에 숙박했을 때의 식단을 쓴 것(신기수 컬렉션의 세계)

4. 残された遺跡・남겨진 유적

1. 尻無川·시리나시강

尻無川は、大阪市西部を流れる淀川下流の分流で延長3.8kmです。

淀川の分流である木津川と大正橋で分かれ、港区と大正区との境界を南西流して大阪湾に入ります。

江戸時代、尻無川は幕府の船と朝鮮通信使を乗せた川御座船のみが通行できる「唐人滞(とうじんみお)」と呼ばれる専用の川でした。

九条島と寺島,勘助島との間を流れ,下流では市岡,泉尾などの新田開発がすすみました。

尻無川には幕府の監視所と船倉があったと伝わっ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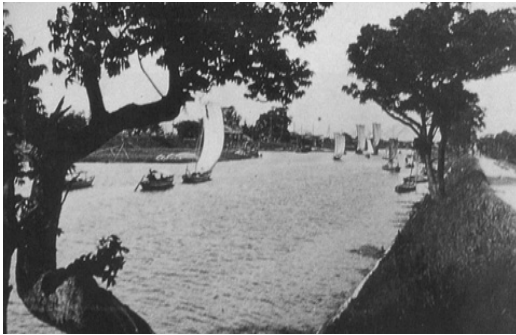
시리나시강은 오사카시 서부를 흐르는 요도강 하류의 분류로 전체 길이 3.8km이다.

요도강의 분류인 기즈강과 다이쇼바시로 나뉘어, 미나토구와 다이쇼구와의 경계를 이루어 남서로 흘러 오사카만으로 들어간다.

에도시대 시리나시 강은 막부의 배와 조선통신사를 태운 좌선만이 통행할 수 있는 '당인령'이라 불리는 전용 강이었다.

쿠조시마와 테라시마, 칸스케지마 사이를 흐르고, 하류에서는 이치오카, 이즈미오 등에 새롭게 밭 개발이 진행되었다.

시리나시강에는 막부의 감시소와 선창이 있었다고 전한다.



『特別展 浪速百景-いま・むかし-』
(大阪城天守閣特別事業委員会発行、1995年) p64

『특별전 나니와백경-현재・옛날』
(오사카성천수각특별위원회발행, 1995년) p64

2. 御船蔵跡·선착장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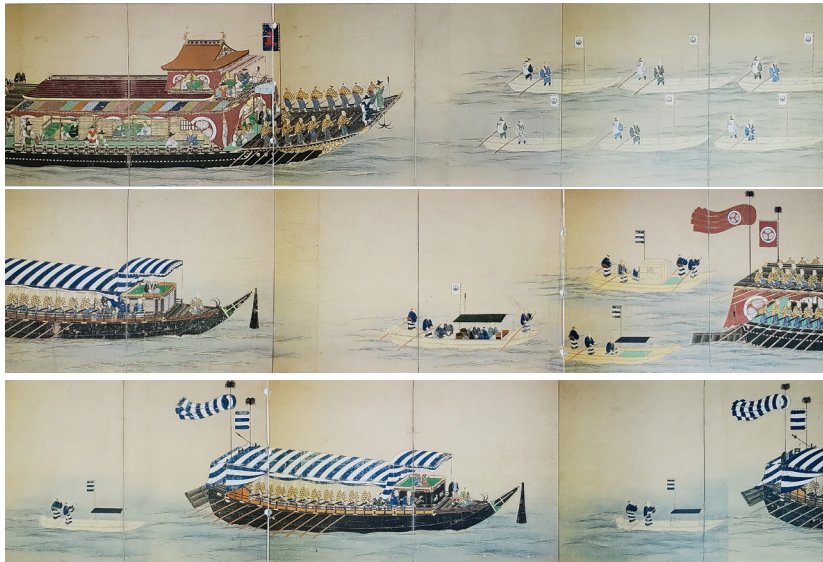
御船蔵跡(おふなぐらあと)は幕府艦船の格納庫跡地です。「御船蔵」とは幕府艦船等を納める施設で、いろいろな文書や地図にも記録されています。

大阪の三軒家西1-7にある岩崎橋公園内に「御船蔵跡」パネルがあります。三軒家地域は、豊臣時代から開発者の中村(木津)勘助の名前をとって、勘助島(かんすけじま)と呼ばれていました。江戸時代には「御船蔵」と「木津川口遠見番所」が設けられ、御船蔵は現在の岩崎橋公園付近、番所は大正橋公園付近にありました。

幕府の官船などを納める施設で、川御座船などもここにありました。川御座船には紀国丸や土佐丸等の名前がみられ、漆塗りの屋形で、金銅の金具や豪華な装飾を施し、櫓(ろ)と棹(さお)で航行する川船でした。朝鮮通信使は大船を停泊させて川御座船に乗り換え、大坂市中に向かいました。

오후나쿠라터(御船蔵跡)는 막부 함선의 격납고 가 있었던 곳이다. “오후나쿠라(御船蔵)”란 막부 함선 등을 정박해 두는 시설로, 여러 형태의 문서나 지도에도 기록되어 있다.

오사카 산켄자야 니시 1-7 번지에 있는 이와사키바시 공원 안에 “오후나쿠라터”라는 안내표지가 있다. 산켄자야 지역은, 도요토미 시대부터 개발자인 나카무라 칸스케의 이름을 따서, 칸스케 섬이라고 불렸다. 에도시대에는 “오후나쿠라”와 “키즈카와구치 토오미반쇼”가 설치되었으며, 오후나쿠라는 현재 이와사키바시 공원 부근, 번소는 다이쇼 바시 공원 부근에 있었다. 막부의 관선 등을 납입하는 시설로 가와고자부네(川御座船)등도 여기에 두었다. 가와고자부네는 기노쿠니마루나 토사마루 등의 이름을 볼 수 있는데, 옷칠한 집형태로, 금동 금장등으로 호화롭게 장식을 하고, 노와 샷대로 항행하는 강선(川船)이었다. 조선통신사는 큰 배를 정박시키고 가와고자부네로 갈아타고 오사카시 안으로 향했다.



朝鮮通信使川御座船図屏風(個人蔵)・조선통신사 가와고자부네선병풍(개인소장)

3. 九条島と朝鮮通信使の碑・쿠조시마와 조선통신사비

淀川や大和川河口に形成された砂堆は大小の島々となって難波八十島と呼ばれ、九条島もそのうちの1つです。

九条島は河流・航行の妨げとなっており、1684年(貞享元年)から1687年(貞享4年)にかけて、河村瑞賢によって安治川の開削工事が行われ、九条島が2つに分けられました。以降、安治川左岸が九条村、右岸が西九条村と呼ば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こに建てられた碑の裏面には「この九条の地は、江戸の寛永年間水理の才のあった幕府の役人、香西哲雲が土地の有力者、池山新兵衛の協力を得て開発したものです。それまでこの地は南浦と呼ばれ「海辺より怒涛逆流する」砂洲でした。この近くにある竹林寺はある朝鮮人の菩提寺で江戸時代、日本と善隣友好に尽くした朝鮮通信使ゆかりの寺院です。」とあり、碑の正面から左面には「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は江戸への行き帰りに大坂で多くの学者文人と交歓しました。正使らの江戸参向中、水夫たちは大坂の川の入り口で船泊まりし、竹林寺で旅の疲れをいやしました。また、1764(宝暦14)年の使節団とともに来日し、不幸にも大坂の地で事件に巻き込まれた通訳の崔天宗、発病して帰らぬ人となった随員の金漢重の二人も同寺で手厚く供養されました。」と書かれてあります。正面右側には金漢重の詩と当時住職の追悼文が記されている。朝鮮通信使は釜山を出港して九条島を通過して川口で船を降り、そこから川御座船に乗り換えて淀へ向かい、淀からは陸路で江戸に向かいました。

요도강과 야마토강 하구에 형성된 토사의 퇴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 사퇴가 크고 작은 섬들이 된 것으로 이를 나니와노야소시마라 불렀으며, 쿠조시마도 이 중 하나이다.

쿠조시마가 강의 흐름과 배의 항해에 방해가 되어 1684년부터 1687년에 걸쳐 카와무라 즈이켄에 의해 아지강의 개착공사가 이루어져, 쿠조시마는 두 개로 나뉘었다. 이후, 아지강 좌측을 쿠조무라(마을), 우측을 니시쿠조무라로 부르게 되었다. 이곳에 세워진 비문 뒷면에는 '이 쿠조는 에도시대인 칸에이 때 수리 전문가인 막부 관리 카이사이 세키운(香西哲雲)이 이 지역의 유력자인 이케야마 신베이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곳이다. 개발되기까지 이 땅은 남포라고 불리며 "해변부터 성난 파도가 올라오는" 모래땅이었다. 이곳 근처에 있는 치쿠린지는 어느, 조선인의 보리사(최천종과 김한중 두 사람의 위패를 모신 절)로 에도시대 일본과 선린우호에 힘썼던 조선통신사의 연고가 있는 사원'이라고 적혀 있고, 비문정면에서 좌측에는 '에도시대 조선통신사는 오사카에서 많은 학자문인과 교제하였다. 정사들이 에도 향하는 중에 선원들은 오사카의 강 입구에 배를 정박하고 죽림사에서 여정을 달렸다. 또한 1764년 사절단과 함께 와, 불행히도 오사카에서 사건에 연루된 역관 최천종, 발병하여 불귀의 객이 된 수행원 김한중 두 사람도 같은 절에서 용승히 공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면우측에는 김한중의 사세시와 당시 주지의 추도문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통신사는 부산을 출항하여 쓰시마, 세토나िका이, 쿠조시마를 지나 가와구치에서 배를 내리고 거기서 가와고자부네 갈아타고 요도로 향하였으며 요도에서는 육로로 에도로 향하였다.



九条島の朝鮮通信使碑・쿠조시마 조선통신사비

4. 高麗橋・고려교(코우라이바시)

大坂城築城に際に架橋されたと言われており、慶長9年8月銘の擬宝珠が発掘されています。現在の橋は1929年に架け替えられたものですが、欄干の擬宝珠や西詰にあった櫓屋敷を模した親柱が、橋の歴史を物語っています。

東横堀川に架かる高麗橋の由来は、古代に朝鮮半島諸国の使節を迎えた「高麗館(こまのむろつみ)」があったからという説や、豊臣秀吉の大坂町割りの際、この辺に朝鮮半島との交易の拠点があったからという説などがあります

江戸時代、公儀橋として橋の西詰には幕府の高札(幕府の法令などを知らせる掲示板)が立てられ、高麗橋筋には三井呉服店(現在の三越百貨店)や三井両替店などが建ち並び活気溢れていました。

慶長年間(1596~1614)には、擬宝珠(ぎぼし)をもつ立派な橋だったとか。明治政府はこの高麗橋に道路の起終点を示す工作物である里程元標を置き、ここを西日本の道路の距離計算の起点と決めました。

明治3年(1870)にはイギリスより輸入された鉄橋に大阪ではじめて架け換えられ、ガス灯によって黒々とした光沢を放つその壮観に当時の人々は驚き、「くろがね橋」との愛称で親しみました。現在の橋は昭和4年(1929)に架け替えられた鉄筋コンクリート製のアーチ橋で、欄干の擬宝珠や西詰にあった櫓屋敷を模した親柱が、橋の歴史を物語っています。

오사카성 축성 시 만들어진 가교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1604년 8월 글씨가 새겨진 난간범수가 발굴되었다. 현재의 고려교는 1929년에 교체된 것이지만, 난간의 의보주나 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망루터를 본뜬 난간 끝 굽은 기둥이 다리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히가시요코보리 강에 놓여진 고려교의 유래는 고대에 한반도 여러 사절을 맞이한 “고려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사카 마을 분할 때 이 근처에 한반도와의 교역의 거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 등이 있다.

에도시대의 공공 다리로서 다리의 서쪽 끝자락에는 막부의 법령 등을 알리는 게시판이 세워져 있었고, 다리 양 옆 길에는 미츠이 비단집(현, 미츠코시 백화점)이나 미즈이 환전상 등이 있어 활기가 넘쳤다.

1596년부터 1614년에는 기보시를 가진 훌륭한 다리였다. 메이지 정부는 이 고려교에 도로의 기종점을 나타내는 이정원표를 세우고 이곳을 서일본 도로의 거리계산 기점으로 정했다.

1870년에는 영국에서 수입된 철교가 오사카에서 처음으로 건설되었으며, 가스등으로 까만 광택을 반사시키는 그 장관에 당시의 사람들은 놀라 “쿠로가네 다리”라는 애칭으로 친숙해졌다. 현재의 다리는 1929년에 교체된 철근 콘크리트 제의 아치교로, 난간 범수나 서쪽 구석에 있던 큰 기둥만이 다리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上 : 現在の高麗橋・상 : 현재의 고려바시
下中 : 擬宝珠記録・하중:기보시 기록
下左 : 離程元標跡・하좌:거리 이정표터 비
下右 : 高麗橋説明文・하우:고려바시 설명문

エピソード・일화

♣ 鈴木伝蔵事件発生・스즈키 덴조 사건 발생 ♣

1764年(宝暦14年)趙曦は通信使477人を引き連れた長い道のりにおいて、不幸にも苦勞と事故が多かったことで有名です。

その一つが軍官だった崔天宗(チェチョンジョン)の殺害事件でした。

江戸で国書交換の儀式を終えて帰国の途についた趙曦一行が1765年4月6日大坂の西本願寺(津村別院)で夜明けごろが崔天宗が刺客の刃物で刺されて翌日死亡しました。犯人は対馬の訳官鈴木伝蔵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鏡を失った崔天宗が自分を疑って棒で殴ったため、「悔しさのあまり殺した」と自供したのです。

時間が経つにつれ隠された事件の裏側がわかりました。随行員たちが高麗人參を密かに携帯し、日本の対馬訳官の護衛の下で販売した後、高麗人參の販売代金を支払う過程でトラブルが生じ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諸説あり)。この事件は演劇や小説の興味深い素材になりました。

1764년 조엄은 477명을 거느린 통신사 정사로 긴 사행길에 올랐지만 불행히도 고생과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 중 하나가 군관이었던 최천종의 피살사건이다.

조엄 일행이 에도에서 의전 절차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던 1765년 4월 6일, 오사카의 숙소인 니시혼 간지(西本願寺)에서 새벽 무렵 최천종이 자객의 칼에 찔려 다음날 사망했다. 검거된 범인은 대마도 역관 스즈키 덴조로 밝혀졌다. 거울을 잃어버린 최천종이 자기를 의심하며 말채찍으로 때렸기 때문에 분을 못 이겨 저질렀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감춰진 이면이 드러났는데 역관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인삼을 몰래 휴대해 일본 쓰시마 역관들의 호위 아래 판 후 인삼판매 대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그 외 여러 설이 있음). 이 사건은 계속 부풀려져 한동안 일본에서는 가부키나 소설의 흥미로운 소재가 됐다.



「漢人韓文手管始」国分寺客殿の場(国立劇場蔵)・「한인한문수관시」코구분지객전장(국립극장소장)

5. 竹林寺-朝鮮通信使(小童,金漢重)の墓・치쿠린지-조선통신사(소동김한중)의 묘

竹林寺は1649(慶安2年)に建てられたといわれています。江戸に行かず大坂に残った朝鮮通信使の宿舎としても使用され、1764(宝暦14年)、11回目の朝鮮通信使の金漢重(キムハンジュン)の墓があります。金漢重は朝鮮東萊府草梁の人ですが大坂で病に臥しせ、同寺で亡くなりました。本国には愛する妻と2人の子どもがいて、望郷の念に駆られて子どもに逢いたいとすがる彼の姿に、大坂の医者たちも心を痛め、同じ年頃の日本の子ども2人を金漢重の枕元へ呼んで、我が子に見立てて看病させたといえます。

金漢重は死期の近づいたことを悟り、辞世の句を残しました。

「今春倭国客、去年中朝人中
浮世何定処、可帰古地春」

金漢重 行年22齡書

竹林寺の住職はとても哀れに思い、彼のために念仏を百万回唱えるときめました。当時の竹林寺の住職がその死を追悼した「日の本に消えし露の玉ぞとは、知らで新羅の人や待らむ」という詠草が「撰津名所図会大成」にあります。

치쿠린지는 1649년에 세워졌다고 한다. 에도에 안 가고 오사카에 남은 조선통신사의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1764년 11차 조선 통신사 김한중의 무덤이 있다. 김한중은 조선 동래부 초량 사람으로 오사카에서 병을 얻어 이 절에서 세상을 떠났다. 본국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어 고향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매달리는 김한중의 모습에 오사카 의사들도 가슴 아파하며 또래 일본 아이 둘을 김한중의 머리맡에서 간병시켰다고 전한다.

김한중은죽음이 가까왔음을 깨닫고 사세의 구(유언의 시)를 남겼다.

「올 봄은 손님으로 일본에, 지난해는 고향 중에,
덧없는 세상을 어찌 정착하리, 옛 고향의 봄을 그리워 하네」

김한중 졸해 22세 씀

치쿠린지 주지는 매우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해 염불을 백만 번 올렸다고 전한다. 당시 주지가 김한중의 죽음을 추도하면서「일본에 사라져 이슬 방울이라니. 낫설은 고향사람들 기다리네」라고 쓴 추모의 와카(和歌)가 셋츠명소도회대성에 남겨져 있다.



竹林寺-金漢重の墓・치쿠린지-김한중의 묘